

본회 회장 출마 자격 강화됐다

- 대의원 추천제 부활, 기탁금제 도입 등 -

본회 회장 출마 자격이 강화됐다.

회장 보선 관련, 지난 10월 4일 실시된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본회 임원진은 지난 몇 차례의 회장 선거시 발생한 폐단을 막고자 회장 출마 자격을 강화, 이번 선거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.

회장 출마 자격이 없었던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후 소견발표 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사례, 후보 등록 후 소견발표 시간에 회장 선거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었다.

이에 본회 임원진은 진정 회장직에 뜻을 둔 인물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▲ 대의원 추천 ▲ 기탁금제 도입 ▲ 10년 이상 사슴농장 운영 등을 임원 선거 규정에 포함시켰다.

대의원 추천 부문에 있어 회장 후보자는 총 대의원수의 10%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. 금번 보궐선거의 경우 총 대의원이 79명이므로 8명의 대의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. 회장 후보 추천은 1대의원 1추천으로 한정했으며 추천대의원 독식을 방지키 위해 추천대의원수는 정하는 수에 부족하

거나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.

기탁금제도에 있어서는 기탁금 3백만원을 선거 7일전까지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총 대의원수의 15%이상을 득표하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. 15%미만 득표자는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기탁금은 본회 일반회계에 귀속되도록 결정했다.

또한 회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양록업계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이상의 사슴농장 운영 경력이 있어야 회장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했다. 더불어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 외에도 소견발표시간을 종전 20분에서 10분으로, 선출할 임원은 부회장 5명에서 3명으로, 이사 17인에서 16인으로 각각 개정했다.

한편 이날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공정한 선거 및 향후 선출될 신입 회장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전원 일괄 사임했다. 다.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감사는 제외됐다. 한국양록

